

HARVEST TIMES

2026년 1월 1일 제 16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하베스트 대학교 동경 캠퍼스
학장 박영희 박사

HARVEST

CONTENTS

- 03 품성계발 신학
- 06 하베스트 대학교 동경 캠퍼스 학장 **박영희** 박사
- 07 하베스트 대학교 캠퍼스 - 태안, 제주, 동경, 나갈랜드, 치앙마이
- 18. 하베스트 학위 운영과정 규정
- 23 1월 강좌 안내
- 26 the 행복한 부부학교
- 31 연금 과정 안내
- 35 무슬림들이 맞이 하는 크리스마스
- 41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 46 질투하시는 하나님
- 55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
- 60 [서평] 내가 사랑한 설경
- 63. [독후감 수상작] 왜 믿음인가
- 69 유목민에게 나타난 교회사
- 74 33회 세계선교 컨퍼런스

품성 계발의 신학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는 삶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대표
하베스트 대학교 총장
이성상 태국 선교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있어, 품성의 회복과 계발은 단순한 인격 수양을 넘어,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는 "품성 계발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고 자라가야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성경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27)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적 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존재하며, 그분을 닮도록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창조(Creation)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사는 것이 본래의 삶이었습니다.

2. 타락(Fall)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은 사망으로, 평화는 분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 회복(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는 칭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칭의(Justification):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성화(Sanctification):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4)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정과 지성,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감정(Emotion): 하나님은 기쁨, 분노, 사랑, 질투와 같은 감정을 지니십니다. (신명기 5:9, 창세기 1:31)

지성(Intellect):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47:4-5, 139:1-4)

의지(Will): 하나님은 거룩과 선을 선택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8)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

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닮아 가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예를 들어 전능성이나 무한성은 우리가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도덕적 성향과 인격적 특성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성품으로는 사랑, 기록, 공의, 긍휼, 신실, 온유, 겸손, 인내, 지혜, 자비, 정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야 할 모습입니다.

인간의 성품: 기질, 체질, 인격

1. 기질 (Temperament)

기질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입니다. 감정의 반응, 태도, 습관 등에 영향을 주며,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성경은 이를 '옛 사람' 혹은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2. 체질 (Physical Constitution)

체질은 사람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건강, 에너지 수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며, 전통적으로는 음양 체질로 나누어 식생활이나 습관에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3. 인격 (Personality)

인격은 인간의 '사람다움'을 구성하는 핵심으로, 지성(知), 감정(情), 의지(意)의 조화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도덕성, 책임감, 정직함, 자아 인식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숙한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인성과 품성의 차이

인성(Personality)은 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됨을 의미합니다. 예의 바름, 친절함, 유쾌함처럼, 교육이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품성(Character)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깎고 다듬어 지면서 형성되는 내적 성품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매너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룩함, 경건, 신실함, 온유함과 같은 속성입니다.

사회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존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품성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인성이 훌륭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칭의와 성화)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일시적인 매너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품성 계발은 선교사의 영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은 곧 선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고 자라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사의 본질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하베스트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치앙마이 센터 | 하베스트연금

하베스트 대학교 동경캠퍼스 박영희 학장

박영희 박사
동경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하베스트 동경 캠퍼스 학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0)

1994년, 일본 그리스도교단의 초청으로 일본 땅을 밟은 이후 지금까지, 오직 복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께서 일본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역에 임해왔습니다.

1995년부터는 세계선교 통신신학을 운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자 양성을 위한 상담실 사역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까지 수많은 일꾼이 배출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현재까지

미국 내 교회 개척 2곳,

중국 내 교회 개척 2곳,

일본 내 교회 개척 20곳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동경의 십자가 열방을 품다』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 선교의 현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 동경세계선교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이하여, 하베스트대학교 이
성상 총장님을 동경으로 모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총장님의 지도 아
래, 하베스트 동경분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는 일본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베스트 동경분교는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추수군을 양성하는 복음의 훈련소입니다. 학문과
영성이 균형잡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인재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은 일본을 넘어 세계 선교의 관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주자들이 하베스트 동경분교를 통해 발굴되고, 세워지



고, 파송되는 선교의 역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하베스트 동경캠퍼스에 더 많은 신학생들이 입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추수군으로 세워지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주역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한 마당이며, 일본은 그 복음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추수할 일꾼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ARVEST UNIVERSITY 일본 동경 Campus



HARVEST UNIVERSITY 한국 태안 Campus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08-193

학장 박춘숙 선교사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캠퍼스는
선교사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잡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그때 그펜션**

꽃지 해수욕장, 밧개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등 쉴 거리 먹거리 장소가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해루질

체험과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가족 (선교사님들과 가족) **1인 1일 2만원**

연락처 **010 2733 6287, 010 6560 6287**

주중에 오시면 더욱 조용하게 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엔 **안면도 들꽃축제와 국화축제, 대하 축제**가 진행됩니다.



HA

RVEST UNIVERSITY 한국 태안 캠퍼스 전경



HARVEST UNIVERSITY 한국 제주 Campus



HARVEST UNIVERSITY 인도 나갈랜드 Campus

학장 장병욱 선교사 석사, 박사 영어 과정



HARVEST UNIVERSITY 태국 치앙마이 Campus

도전!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하베스트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교육의 장소를 위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1층 예배실, 도서관, 사무실, 세미나실

2층 게스트하우스 - 침대, 에어컨, 식기류 등 각 방을 위해 4백만 원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층 치앙마이 전경이 보이는 연구실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치앙마이 센터를 오픈합니다.

하베스트 가족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고 오셔서 논문도 쓰시고 쉼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조식포함)

치앙마이 센터 예약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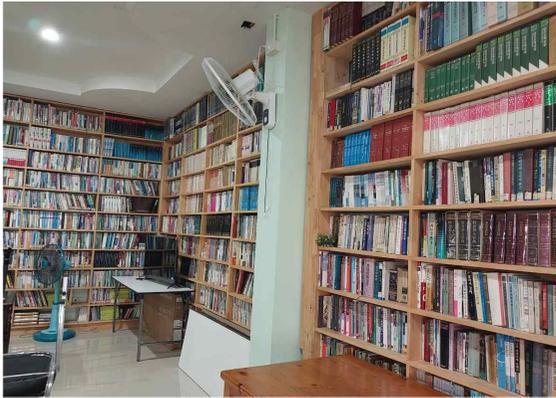
선교센터 입구



입구에서 본관 진입로



선교센터 정면



4만 여권의 도서가 있는 도서관



2층 게스트하우스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서는 -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복지(연금, 열방물)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하시도록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가 완공되어** 많은 선교사님이 고향 집, 친정 집처럼 활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각 숙소에 에어컨과 침대 등이 구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각 방 400만원 x 숙소 12개**
4. **하베스트 선교사님들에게 연금을 풍성하게 지급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관으로 뚝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500명에게 150만 원씩 매월 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달려오십시오!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웃고, 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어 봅시다.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은 한국, 태국,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다.

하베스트는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영성과 품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 **하베스트 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 **치앙마이 선교센터** ◆ **선교사 복지(연금, 열방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베스트는 늘 선교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한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베스트 대학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영어과정, 한국어 과정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www.harvest-mission.com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과정 운영 규정

하베스트 대학교는 학점 은행제로 운영된다.

- (1)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 (2)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다.

행정비

- (1) 입학금은 5만 원으로 한다
- (2)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등 제반 서류 발급 비용은 2만 원으로 한다.
- (3) 선교지의 학생일 때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이 정한다.

학비

- (1) 1학점당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학생 정원

- (1) 대학원장과 담당 교수의 결정으로 학생 1인 이상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입학 서류 제출처

하베스트 대학교 교무처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입학금

입학금 5만원을 접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위조문서가 발견될 경우 등록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된다.
아울러 학위 증명서가 무효 된다.

등록 절차

1. 1차 서류 접수, 2차 면접 및 심의, 3차 합격 통지서 발송 후 학비를 납부한다.
2. 학번을 부여받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을 신청한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
P.O. Box 2508
Cincinnati, OH 45201

HARVEST UNIVERSITY
2471 FOXDALE AVE
LA HABRA, CA 90631

Date: 09/19/2025
Employer ID number: 39-4079535
Person to contact: Name: M Collins
ID number: 3364079
Telephone: 877-829-5500
Accounting period ending: December 31
Public charity status: 509(a)(2)
Form 990 / 990-EZ / 990-N required: Yes
Effective date of exemption: May 18, 2025
Contribution deductibility: Yes
Addendum applies: No
DLN: 26053653005725

Dear Applicant:

We're pleased to tell you we determined you're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under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501(c)(3). Donors can deduct contributions they make to you under IRC Section 170. You're also qualified to receive tax deductible bequests, devises, transfers or gifts under Section 2055, 2106, or 2522. This letter could help resolve questions on your exempt status. Please keep it for your records.

Organizations exempt under IRC Section 501(c)(3) are further classified as either public charities or private foundations. We determined you're a public charity under the IRC Section lis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If we indica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that you're required to file Form 990/990-EZ/990-N, our records show you're required to file an annual information return (Form 990 or Form 990-EZ) or electronic notice (Form 990-N, the e-Postcard). If you don't file a required return or notic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your exempt status will be automatically revoked.

If we indicated at the top of this letter that an addendum applies, the enclosed addendum is an integral part of this letter.

For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responsibilities as a tax-exempt organization, go to www.irs.gov/charities. Enter "4221-PC" in the search bar to view Publication 4221-PC, Compliance Guide for 501(c)(3) Public Charities, which describes your recordkeeping, 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Sincerely,

Stephen A. Martin
Director, Exempt Organizations
Rulings and Agreements

Letter 947 (Rev. 2-2020)
Catalog Number 35152P

2026년 1월 강좌

행복한 선교사가 됩시다!

<강의 시간표>

- (월) 김현진: 공동체와 선교
- (월) 강중현: 에베소서 원문강해

- (화) 장세호: 코칭 리더십
- (화) 김부식: 문화예술학

- (수) 선계명: 예수님의 권세

- (목) 김규동: 초기 기독교 영성사
- (목) 나주아: 바울의 종말론

- (금) 최하영: 아시아 교회사
- (토) 이성상: 논문 작성법



하베스트



가족성장 상담 대학원

가족성장 상담학석사 과정 (36학점)

Master of Arts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1. 전공필수과목

10과목 20학점, 아래 15과목, 각 2학점 중 10과목 선택 가능

가족치유 7 과정

내적 치유 (오광복/이은경 교수), 역기능가정 치유 (오광복 교수)

우울증과 분노 치유 (오광복 교수), 성격장애 및 인격장애 치유 (오광복 교수)

위기 디브리핑 (위기치유상담) (어진옥 교수)

사람 의존성 치유 (오광복 교수), 거짓된 사고 치유 및 중독 치유 (오광복 교수)



가족성장 5 과정

MBTI와 인간 이해 (이은경 교수), 중년기 변화와 성장 (이은경 교수)

인간관계훈련 (오광복 교수), 대화훈련 (이은경 교수)

향기나는 인격과 관계성장 (오광복 교수)

독서치유 3 과정

독서치유 상담 (오광복/이은경 교수)

독서상담의 실제 (어미선 교수), 독서상담실습 (어미선 교수)

2. 자격증 과정 (추가과정)

가족성장 상담사, 가족치유 상담사, 독서치유 상담사

하베스트 대학교 가족성장상담 대학원

<마음치유 가족치유>

일시: 12/1/25-1/19/26

매주 월요일 8:30-10:30pm 8회



<MBTI와 인간 이해>

일시: 12/5/25-1/23

매주 금요일 8:30-10:30 pm (한국시각) 8회

강의: 오광복교수/이은경교수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상담 대학원 원장

SEED 선교회 선교사

참가신청: 11/29(토) 마감 등록비: 3만원.

M.A. 석사학위 과정 수강자 20만원 (2학점)

등록방법: [하나은행 380-910034-99405](tel:380-910034-99405)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송금시 수강자 이름과 “치유”또는 “MBTI”라고 적어 주세요.

The 행복한 부부학교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시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한
특별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태국 치앙마이 센터
2026년 2월 24일(화)~ 26일(목)
선교사님 부부 7쌍 선착순 신청
(신청: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



강의 신청

회비나 참가비가 없으며 선착순으로 7쌍만을 초청합니다.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셔서 서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신학사 (B.Th),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in Theology) 및 통합과정
2026년 1월 신입생 모집

1. 신학석사(Th.M) 졸업 요구학점

- (1) 신학사(B.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 (2) 문학석사(M.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 (3)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



2. 신학전공 철학박사(Ph.D) 과정 학생은 논문 10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전공을 선택하려면 필수과목 이외에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예: 성서학 전공, 조직신학 전공, 교회사 전공, 실천신학 전공 등).

4.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10학점으로 한다.

5. 문학석사(M.A)와 신학석사(Th.M)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의 교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입학요건은 목회학석사(M.Div)나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와 이에 따르는 정규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문화예술학 박사(Ph.D in InterCultural Arts)

석사, 박사 통합 과정



1. 전공필수

교회음악학 (김부식 박사), 문화인류학 (김부식 박사)

문화예술 경영론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힐링발성법 (정찬혜 박사), 아동문학 (김성구 박사)

2. 전공 선택

작곡법 (김부식 박사), 반주법 (김부식 박사)

기초성악 (김미현 박사), 합창지휘법 (김부식 박사)

시낭송 (남기선 교수), 수묵화 (김부식 박사)

성전꽃꽂이 (이현옥 교수),

시, 수필 강좌 (김부식 교수, 이진영 교수, 김성구 교수, 배인수 교수)

사진학 (정상진 교수), 한국장단(북,장구,뿃과리/사물놀이)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난타(타법과 설계) (김부식 박사)

3. 전공별 논문

1) 음악 전공 음악회

2) 미술 전공 전시회

3) 문학 전공 출판



선교대학원

선교학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 Miss),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및 통합과정

1. 전공 필수

- * 선교학 개론 (김현진 박사),
- * 선교 신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의 역사 (김현진 박사),
- * 선교 문화인류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적교회론 (김현진 박사),
- * 성령과 선교 (김현진 박사)
- * 공동체와 선교 (김현진 박사),
- * 다문화 선교 (김현진 박사)



2. 전공 선택

- * 전도학 (이성상 박사),
- * 미디어와 선교 (조창식 박사)
- * 디지털 시대 AI와 선교 (안정위 박사)
- * 모라비안 형제단의 세계선교 (유정남 박사)
- * 선 의 경 교 (김규동 박사)

3. 논문 - 석사 과정 6학점, 박사 과정 10학점

4. 교양 필수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의 교양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선교대학원장
김현진 박사



하베스트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대학원 학위과정 안내
선교학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 Missiology),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전공필수 과목

- * 선교학 개론
- * 선교 신학
- * 선교의 역사
- * 선교 문화인류학
- * 선교적교회론
- * 성령과 선교
- * 공동체와 선교
- * 다문화 선교

교양필수 과목

- 석사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논문 작성 필수

-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10학점
- 세계선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문을 작성해야 함

전공선택 과목

- * 전도학
- * 미디어와 선교
- * 디지털 시대 SI와 선교
- *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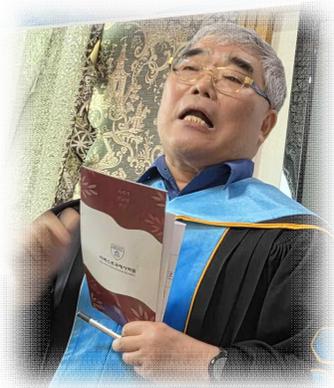
등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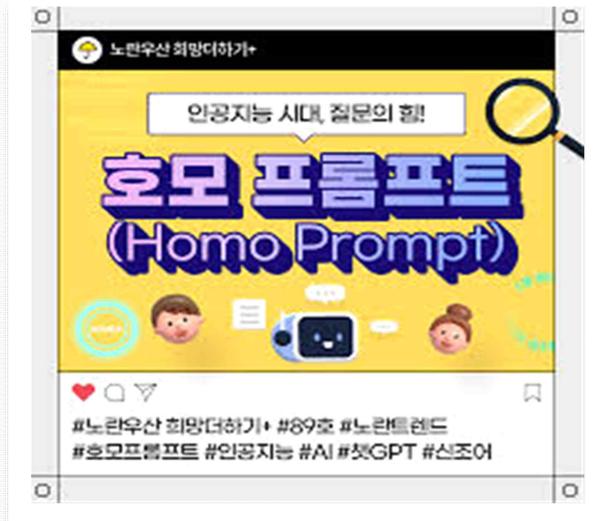
하베스트 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안정위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전산정보처장
미디어 대학원 교수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우리는 지금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시대, 즉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에게 어떻게 지시하느냐가 핵심 능력이 되었습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지시하는 문장으로, 이를 잘 사용할수록 AI는 더 정확하고 유익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이 아는가”보다 “누가 AI에게 더 잘 지시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이 됩니다.



프롬프트 능력은 새로운 문해력입니다. 원하는 형식, 길이, 말투, 대상 등을 명확히 말할수록 AI는 우리의 일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문서 작성, 번역, 보고서 정리, 성경 공부 자료 제작 등 사역 전반의 부담을 줄여주는 큰 기회가 됩니다.

호모 프롬프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명확한 표현력, 구조화 능력, 조건을 붙여 지시하는 능력, AI 결과를 점검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능력을 익히면 누구나 AI와 협력하여 더 큰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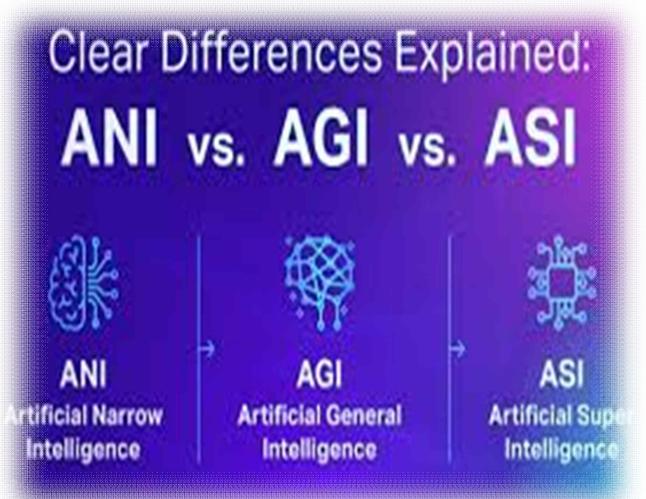
손정의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인공초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조금씩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쿼텀 점프(Quantum Jump)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인간과 AI의 지능 격차를 설명하시며 “금붕어와 인간의 차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그 격차가 논쟁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손정의 회장이 제시하신 인공지능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AGI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와 1대1 수준으로 사고하는 단계이며, 현재 많은 기술 기업이 목표로 삼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ASI (인공초지능)은

이보다 훨씬 앞선 단계로, 인간보다 1만 배 뛰어난 지능을 갖춘 존재를 뜻합니다.

손정의 회장은 “10배나 100배 차이라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1만 배 차이는 인간과 금붕어의 수준 차이와 같다”고 설명하시며 그 격차의 압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미래를 앞서 내다보았던 손정의 회장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진지한 준비와 대비를 요청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ASI 시대는 더 이상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슬림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김종일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아신 대학교 교수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붉은 장식들이 겨울의 회색빛을 덮는 계절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흥얼거린다. 하지만, 무슬림들 사이에서 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이 오늘따라 가슴을 더 시리게 한다.

과연 이 소식이 무슬림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Good News)으로 닿고 있는가?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줄인 이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존경하는 옛 선지자의 생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말구유 앞에 서서, 우리가 믿는 예수와 저 18억 무슬림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나란히 세워두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학적 비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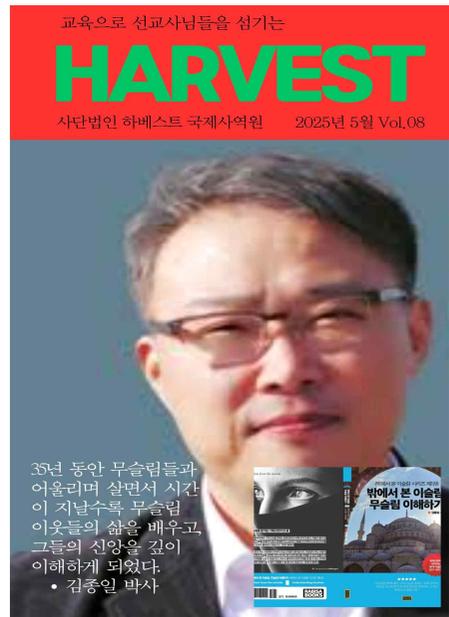
놀랍게도, 중동 메카의 종교인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서도 예수는 낯선 이름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싸'라 부르며 지극한 존경을 표시한다. 꾸란 전체에 걸쳐 예수의 이름은 25번, '메시아(알 마시)'라는 호칭은 11번,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로는 2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총 59회나 등장한다.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더 신비롭게 묘사되는 인물이 바로 꾸란의 예수다.

우리가 무슬림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각뚱함에 놀라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욕되게 한다면, 가장 먼저 화를 낼 사람들은 어쩌면 무슬림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예수는 알라의 말씀이며, 알라의 영이고, 죄 없는 순결한 존재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같은 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차가운 영적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그 존경심 뒤에는 치명적인 '결핍'이 숨겨져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성탄의 목적'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자 가장 위대한 신비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내려와,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드라마.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다.

그러나, 꾸란 속의 예수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슬람의 알라는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가 십자가라는 당시 로



마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에서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모든 무슬림이 믿는다.

꾸란 4장 1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 구절 하나가 기독교와 이슬람을 영원히 갈라놓는 거대한 협곡이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예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인 ‘대신 속죄(대속)의 죽음’을 그들의 이슬람 신학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예수는, 물 없는 샘이며, 불 없는 등대와 같다.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예수

이는 마치, 에덴동산의 아담과 같다. 알라가 흙으로 아담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었듯, 예수 또한 알라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신성모독일 뿐이다. 어떻게 영이신 신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며 반문한다. 그들의 논리는 차가운 이성에 기반한다. 부모 없이 태어난 에덴동산의 아담도 신이 아닌데, 어머니만 있는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통찰을 얻는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신은,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침노’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그 ‘비하(卑下)’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그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예언자, 그리고, 승천하여 다시 오실 종말의

심판자 정도로만 가두어 두었다. 구원자가 아닌, 심판의 조력자로 남은 예수. 이것이 전 세계 18억의 무슬림이 믿는 그들의 예수(이싸)가 가진 현주소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명확하다. 꾸란의 '이싸'와 성경의 '예수'는 절대 같은 분일 수 없다. 이름은 같으나 본질이 다르다. 십자가 없는 성탄, 부활 없는 승천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만약, 이슬람의 예수(이싸)가 기독교의 예수와 같아지려면, 이슬람의 예수(이싸)도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완전히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가 인간들에게 보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느냐가 아니다. 그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하셨느냐에 있다. 이슬람의 예수는 십자가를 피해 하늘로 올려졌지만, 기독교의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



이 차이가 바로 '구원'과 '존경'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다.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첫걸음을 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시작된 날이다. 이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무슬림들에게 성탄은 그저 남의 종교 축제일뿐이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성탄 트리의 불빛 아래서 잠시 멈춰 서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사건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끼리 케이크를 자르며 즐거워하는 날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이싸'라는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모른 채 율법의 멍에 아래 신음하는 18억의 전세계 무슬림 친구들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성탄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짜 예수가 그들의 심장에도 태어나는 순간일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담장을 넘어, 이슬람 교리의 장벽을 뚫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세상은 진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코칭 리더십 대학원

문학석사(M.A in Coaching Leadership)

철학박사(Ph.D in Coaching Leadership) 및 석박 통합과정

GROW 코칭 모델을 통한 **선교 코칭 리더십 훈련** (선교사를 위한 7주 코칭 과정)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동역자 및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순한 지시가 아닌 코칭적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과정으로, 최근 선교사들을 위한 ‘GROW 코칭 모델을 활용한 코칭 리더십 훈련’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이 기본적인 코칭 대화 기술을 익히고, 실제 사역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동역자 및 현지인들과의 효과적인 소통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론 40%, 실습 60%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주간 주 1회, 2시간씩 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훈련의 핵심은, 선교사들이 코칭적 태도와 질문을 통해 스스로와 타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코칭 리더십’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GROW 모델 (Rapport - Goal - Reality - Options - Will)의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두며, 각 단계별 실습을 통해 훈련생들이 코칭을 체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칭 리더십 7주간의 여정

1주차에는 코칭의 기본 개념을 다루며, 상담·멘토링·컨설팅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코칭이 왜 필요한지를 조망하며, 라포(신뢰) 형성의 실제 대화를 실습합니다.

2주차에서는 GROW 모델 전체의 흐름을 배우고, 1:1 짧은 코칭 대화를 시도합니다. 좋은 질문의 중요성과 대화 구조의 이해가 강조됩니다.

3주차는 Rapport와 Goal 단계에 집중합니다. 신뢰를 쌓는 대화법과 함께, '기적 질문'과 '5번 왜(Why)' 질문법을 통해 진짜 원하는 목표를 찾는 과정을 실습합니다.

4주차에서는 Reality 단계, 즉 현실 점검을 중심으로 장애 요소와 자원 분석 방법을 훈련합니다.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질문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5주차는 Options 단계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실습이 진행됩니다.

6주차에서는 Will 단계, 즉 실행 계획 세우기에 집중합니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실천 의지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1주간의 실제 실행 계획을 세워 서로 점검합니다.

7주차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통합하여 GROW 모델 전체 대화를 실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며, 과정 전체를 정리하고 향후 실천 방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초급 선교사 및 리더를 위한 실천적 훈련

이 과정은 초급 단계의 선교사 및 선교 리더십 사역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사역 환경에 밀착된 내용과 실습을 통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듣고 배우는 교육을 넘어서, 스스로 대화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참여형 훈련이라는 점에서, 선교사들의 성숙한 리더십 형성에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코칭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아들러 리더십 코칭]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이기심'을 넘어 '공존의 지혜'로



하베스트 대학교 코칭리더십 대학원
장세호 박사

리더십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착하면 손해 보는 세상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이, 왠지 약해빠진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성장은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사적 논리)을 벗어던지고, 성숙한 어른의 지혜인 '공동감각(Common Sense)'을 장착하는 과정입니다. 왜 리더는 사적 논리를 넘어 공동감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함께'할 때 행복하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사회적 연결'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거울 뉴런과 공유 회로는 우리가 타인과 공감하고 협력할 때 뇌에서 가장

큰 보상(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부추기며 우리를 고립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OECD 자살률 1위, 끊이지 않는 고소 고발, 고독사와 우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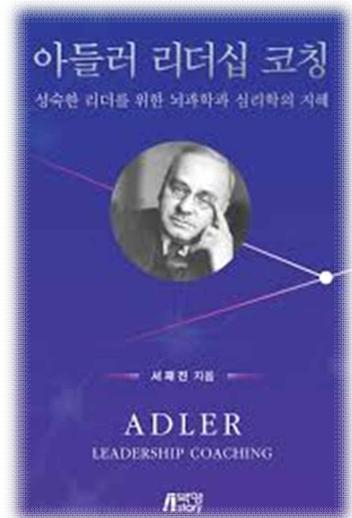
리더가 사적 논리(나만 잘 살면 돼)에 갇히면, 잠시는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결국 극심한 고립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타인과 조직을 위해 기여할 때(공동감각), 리더는 단순한 성취감을 넘어 뇌가 주는 깊은 충만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 성과의 비밀: IQ보다 EQ가 85% 더 중요하다

리더의 존재 이유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만드는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대니얼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탁월한 성과를 내는 리더들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능력(IQ)보다 감성 능력(EQ)이 무려 85%나 더 중요했습니다.

혼자서 일 잘하는 '똑똑한 독불장군'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는 결코 혼자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직 '공동감각(공감과 협력)'에서 나옵니다.

아德勒가 "일, 관계, 사랑이라는 인생의 3대 과제는 공동체 감정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감각은 도덕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리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비즈니스 필수 역량'입니다.



3. 노나라 재상의 지혜: 공공성이 곧 나의 생존이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나라 재상 공의휴의 이야기는 리더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생선을 무척 좋아했던 그에게 사람들이 앞다투어 생선을 선물하려 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법을 굽히게 되고, 법을 굽히면 재상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내 월급으로 생선을 사 먹을 수도 없게 된다. 차라리 뇌물을 받지 않고 재상 자리를 지키며 평생 내 돈으로 당당하게 생선을 사 먹는 것이 낫다." 그는 "뇌물을 받는 건 나쁜 짓이니까"라고 도덕군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에게 더 이익이다"라는 철저한 생존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德勒가 말하는 공동감각의 핵심입니다. 리더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지속 가능한 자기 보호 전략입니다. 사적 논리에 빠져 작은 이익(생선)을 탐하다가 리더의 권위와 자리(재상)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결론: 리더여, 어른의 옷을 입어라

사적 논리는 어린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철없는 시절'의 신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조직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두 살짜리 아이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른에 걸맞은 옷, '공동감각'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보다 원칙을 지키는 리더. 그런 리더만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고, 스스로도 오랫동안 존경받으며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선계명 박사



예수 권세와 치유 효과

2026년 1월 14일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개강

등록비: 청강자 3만원,

학위 과정 수강자 20만원 (2학점)

1주차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에 대해 살펴보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2주차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 권세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말씀의 권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권세,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이 권세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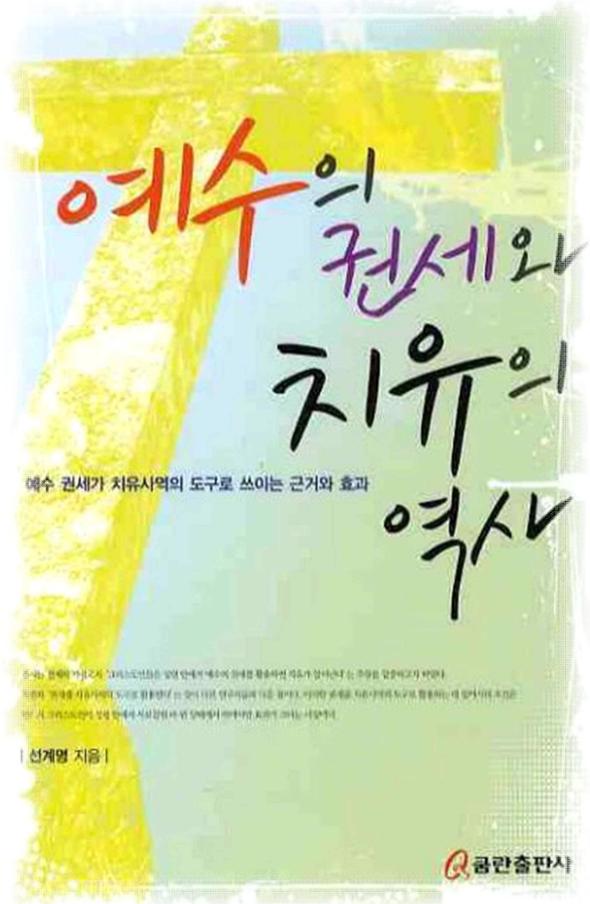
3주차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 권세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주차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효과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5주차에는 이 권세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다룹니다. 믿음, 순종, 성령의 역사에 민감함 등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6주차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와 사역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그 권세는 나타나며,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7주차에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동기, 말씀에 근거한 사역, 그리고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 등을 포함하며, 바른 태도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 20)



정규동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하나님은 이곳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은 6번만 쓰여졌습니다. 모세오경에 5번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5),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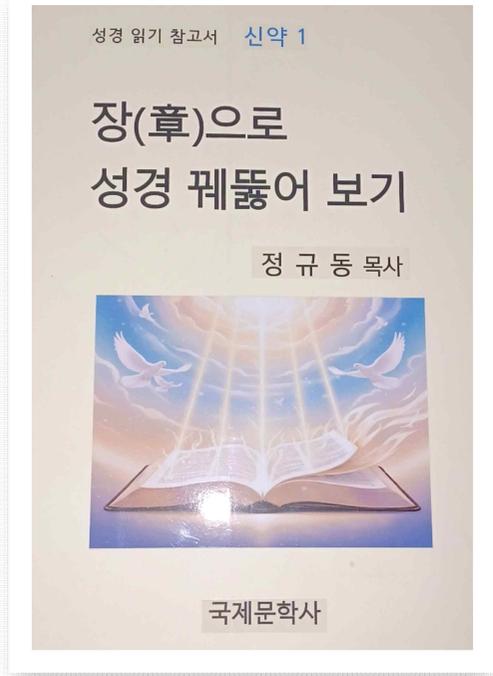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부분입니다(신5:9). 이 두 가지는 십계명과 관계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신명

기에서 모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신 4:24). 다섯 번째는 역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신 6:15). 여섯 번째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24:14). 이어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15)고 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했습니다(15). 이런 선언을 한 뒤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다. 그 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할 때도 2계명과 관계해서 언급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사43:4)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순전히 사랑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장래에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의 서문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았고,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가 '구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근거도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면 최소한 이 10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단지 이 한 가지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의 구분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과 2계명은 유일신 하나님께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3과 4계명은 예배 방법에 관계됩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4가지 계명은 타인의 것을 침해하지 말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6계명(생명), 7계명(정조), 8계명(재산), 9계명(명

예)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국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지만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행동을 제어하지만, 마지막 계명은 '탐심' 곧 마음의 작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나누면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관계되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관계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율법을 범하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행위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움이나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이 계명을 범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특이성

십계명은 3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주어진 모든 율례와 규례는 십계명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십계명은 이 모든 것의 모법(母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22). 그렇기 때문에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23). 세 번째는 십계명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처음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32:16),

그리스도인 품성
 십계명을 통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이성상 지음

척박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법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10계명으로 살아가기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유산으로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추천 1위
 하베스트 대학교
 필독 도서

하나님이 친히 판에 세긴 후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31:18,32:16). 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만들었습니다(34:1).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18-21)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놀라운 광경을 직접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18). 백성들

이 본 것과 들은 것은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였고(18),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21).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19).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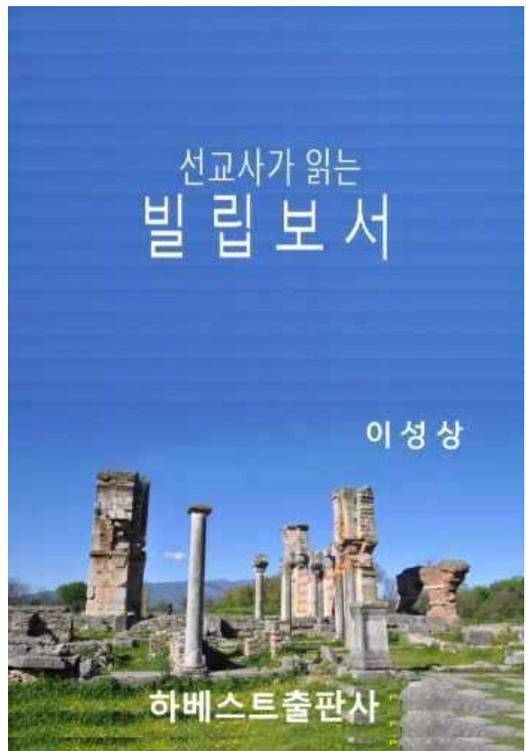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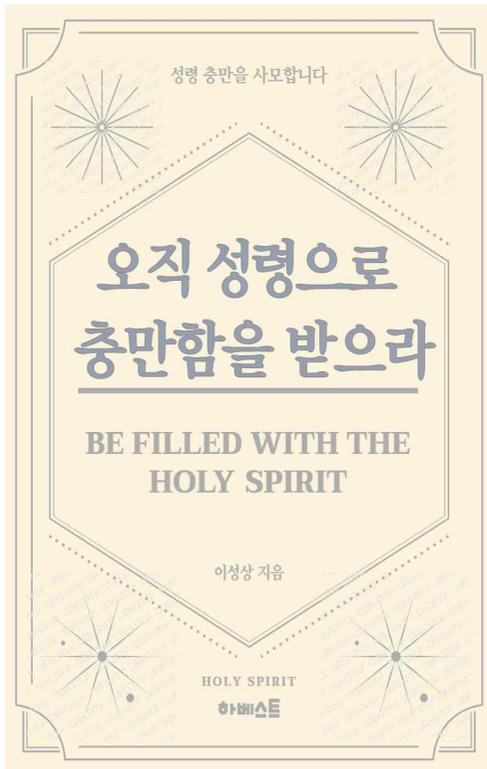
백성들의 이런 요구로 인하여 그 뒤에는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럽고 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3:8-)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범죄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4:16).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엡3:12).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특권을 잘 누리는 우리들이 됩시다.

☆꺾뚫어 보는 성경 세미나☆

- ◇ 일시: 26년 1월 12일(월)~15일(목)
- ◇ 장소: 평산아카데미 (팔공산 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1길 106
054) 975 - 8008
- ◇ 입회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 ◇ 문의: 010 3927 3954 (정규동 목사)
- ◇ 많은 참석 바라고,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세요.



열방 선교

공급사 신청하기 →
공급사 모집

열방몰의 상품판매가
곧 선교입니다.

목회자 연금

2026.01.01
열방몰 오픈

공급사 모집

열방몰의 상품판매가
곧 선교입니다.

입점사 모집

소상공인 여러분!
선교 후원과 함께 성장하세요.

귀하의 매장을 성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씨고 말린 명품 생강, 설아래 흥생강레몬캔디

인삼보다 홍삼, 생강보단 흥생강.
쇼가올이 증가한 흥생강을 담은 명품 캔디



1/2

열방몰은 선교사 파송부터 노후까지 함께



우리교회



교회용품



매장방문



나눔마켓



잠재의식



선교상품



선교복지



선교후원



선교강의



선교공지



하베스트 선교사님께 10년간 연금 보내드리기 프로젝트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많은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후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은 선교사 연금시스템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 연금 가입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산하에서 운영하는 "목회자·선교사 연금시스템"은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사명자들의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역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 연금 가입안내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은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연금 가입 방법

하베스트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입금 시

'이름 + 은퇴금' (예: 이주만은퇴금)

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불입 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열방몰
둘러 보기

📍 은퇴연금 가입상담

주만장로 : 010-3418-9169

📢 지금 바로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동역해 주세요!



AROMATHERAPY

향기로 말하는 여사



향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 향료 때문이
그런데 향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에스
1988 498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



박일승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 [기도정보]

1. 이스라엘, 지난 2년과는 달라진 성탄절 분위기

이번 연말,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이후 오랜만에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하누카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무력 충돌, 테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휴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인질도 사망 인질의 시신 1구를 제외하곤 생존 인질은 모두 돌아온 이후이기에, 이제는 좀더 맘 놓고 기뻐하고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성탄절 또한 베들레헴, 나사렛, 올드시티 기독교쿼터 등 장식 하나 없이 조용히 지나갔던 지난 2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올해는 성탄 트리와 장식으로 꾸며졌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다시 열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전만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전의 축제 분위기를 조금씩 회복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 안보를 위한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개선과 강화 노력 및 이에 대응한 튀르키예의 행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유대사마리아, 레바논, 시리아에서 끊임없이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작전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은 잠시 멈춰있는 사이, 이스라엘은 안보를 위한 중동 지역 질서 재편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집트**와의 역사상 최대 규모 가스 계약 승인에 이어, 이번 주 월요일에는 그리스, 키프로스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동지중해 지역에서의 안보, 국방, 군사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현재 이란 다음으로 중동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튀르키예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큼니다. 튀르키예 또한 이에 대응해 시

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에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는 시리아의 불안정 & 네타냐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시리아에서는 이번 주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충돌하면서 또 한번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알샤라 대통령이 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는 이미지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여러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급진 이슬람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샤라는 집권 후 모든 시리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정, 책임 있고 투명한 선거와 국가 기관 설립을 약속했지만, 그의 약속과 현실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큼니다. 개혁 없이는 안정을 이룰 수 없고, 시리아의 불안정은 이스라엘에게 있

력 확대에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며, 하나님의 '증인' 된 시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사 43: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 기도]

★ 유대인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요 19:19; 계 19:16)

-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압제에서 억압당하는 가자와 레바논 주민은 묵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될지어다! 진리되신 예수님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겔 35:11; 요 8:32)

-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악한 지도자들의 궤계는 굴러가는 검불같이 소멸될 것이며, 억압 당하는

백성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할지어다! (시 83:12-18; 딤후전 2:4)

- 이스라엘 언약의 '씨'와 '땅'을 없애므로 왕의 귀환을 막으려는 모든 세력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질지어다! (욘 3:2)

- 큰 임금의 성(마 5:35), 거룩한 성(마 27:25) 예루살렘 백성들은 눈과 귀가 열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슈아이심을 깨닫게 될지어다! (사 6:9-11; 행 2:36)

-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과 중동 땅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시 122:6)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열방의 성도들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와 일하시는 손으로 쉬지 못하게 할지어다! (사 62:1, 6-7)

-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미혹하는 자 마귀의 모든 궤계는 멸하여지고, 예비된 무저갱과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지어다! (계 20:3, 10)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HARVEST JOURNAL

하베스트 학술지 편집 위원

부편집장 김규동 박사

편집위원 조동욱 박사

김재수 박사

최하영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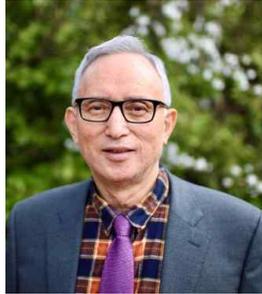
김해규 박사

유정남 박사

김종일 박사

손승호 박사

『내가 사랑한 성경』



배안호 선교사(영국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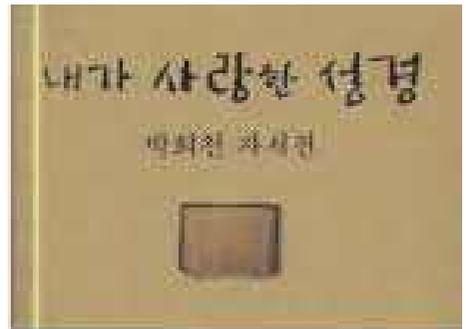
『내가 사랑한 성경 - 박희천 자서전』 서평

“성경은 간단하게 점령되는 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 - 박희천 목사

자서전은 한 인생의 보물창고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 귀한 모델이 된다. 필자는 코로나 펜데믹 초기에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출간하면서 성경 읽기의 모델로 박희천 목사님과 조지 물러를 소개하였다. 그 중 박희천 목사님의 삶은 성경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일관된 ‘목회의 정도’를 보여준다.

1. 성경을 위해 목사가 되신 박희천 목사

박 목사님은 “성경을 알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 쌀 한 말을 지고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성경과 영어책을 챙겼고, 그것이 생명을 살린 “12초간의 기적”이 되었다. 이후 매일 4시간씩, 69년 이상 성경을 읽으며 살아오셨다. 신학생 시절부터 “하루 구약 3장, 신약 1장 이상을 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다. 뜨개질처럼 한 코씩 정성껏 읽어야 한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2. 뺏속까지 겸손한 목회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한 1954년 1월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며, 이후 일평생 ‘나는 없다’는 자세로 사역에 임했다. 유명 목회자들이 배출된 내수동교회도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린다.

3. 복된 만남의 은혜

박 목사님은 네 명의 스승을 통해 큰 영향을 받았다:

한상동 목사: 정직과 철저한 주권신앙, 유익을 위해 망신도 마다하지 않는 목회철학.

박윤선 목사: 학문과 인격의 일치를 보인 참 신학자, 설교법에 결정적 영향.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사에게 맡겨도 된다”는 한상동 목사님의 겸손과 진실함은 목회자상에 큰 울림을 준다.

4. 목회의 정도 - 설교와 성도 사랑

박 목사님은 “설교밖엔 길이 없다”며 성경 읽기에 전념하셨고, 출석 점검까지 철저히 하셨다. 500명, 800명까지도 이름과 출결을 관리하

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다. 교회 어려움 때는 “말하는 병어리”가 되어 하나님께만 아뢰며 침묵으로 견디셨다.

“목사가 시험 중 사람 찾아다니는 건 바른 방법이 아니다.”

“시편 38편 13절을 붙들고 눈물로 견뎠다.”

결론: 지금도 ‘곶사등이’로 성경 읽는 목사님

2025년, 99세의 박 목사님은 하루 6시간씩 성경을 읽고 계신다. 77년간 매일 시편과 잠언을 읽으며 800여 회 반복했지만, 여전히 “성경은 어렵고 끝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출금할 수 있다. 성경이 들어가야 성경이 나온다.”

“설교는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서평 후기

서평자는 금년 3~4월 조국을 방문하여 박 목사님을 5년 만에 다시 찾아 뵈었다. 여전히 겸손히 공부하고, 성경을 예금하듯 채워가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 시대, 성경을 먹은 사람만이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특허받은 블렌딩오일

바르는 여성 청결제



LADY I

Y ZONE THERAPY
FEMINE CARE

왜 믿음인가

저자 조정민

<독후감 수상 수상>

주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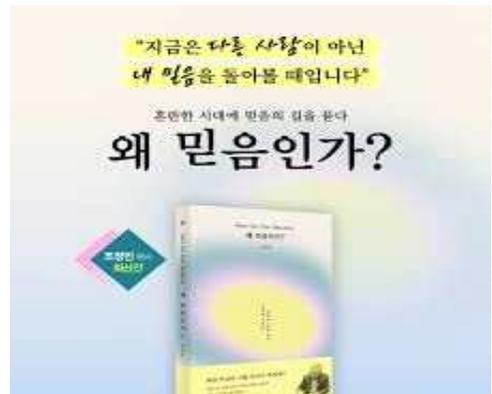
어미선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가정성장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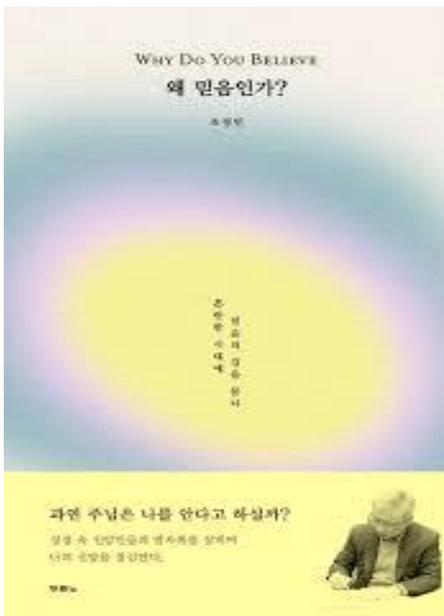
나는 지금 인도라는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이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상담가이자,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코치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지만, 한 달 전 시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내 마음속 모든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마치 내가 굳게 믿고 가르쳐 왔던 복

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다.

어머님은 평생 성당에 다니셨기에, 나는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몇 년 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목소리로 나를 밀어냈다. "당신이 어머니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남편의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선교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신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나의 숨겨진 잘난 척을 정확히 찢어버린 날카로운 비수였다. 나는 그 아픔을 애써 모른 척하며 '선교사'라는 믿음의 화려한 직함 뒤에 숨어 지내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는 정말 구원을 받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파도처럼 내 영혼을 덮쳤다. 이 질문은 결국 무서운 속도로 나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나는 선교사인데, 과연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내가 지금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진짜 바른길일까?" 나는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의 옷을 입었으니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조정민 목사님의 『왜 믿음인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적힌 "나의 믿음은 참된가? 과연 주님은 나를 안

다고 하실까?"라는 질문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질문과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종교적인 직분과 착한 일들이라는 모래 위에 믿음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책을 통해 나의 실상을 점검 받고 싶었다.

저자인 조정민 목사님은 25년 동안 방송국 기자와 앵커로 일하며 교회를 비판했던 날카로운 지성인이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목사가 되었다. 나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사람에게 그의 논리적이고 똑 부러지는 복음 이야기는 흔들림 없는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책은 성경 속 아브라함, 욥, 엘리야처럼 믿음이 대단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책을 읽으며 나는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가지 산을 만났다. 바로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이다.

첫째, 아브라함의 '떠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기 편했던 모든 것, 즉 내가 가진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인도 땅으로 떠났다 그러나 나는 '인도 선교사'라는 멋진 이름과 '선교보고서의 좋은 실적'이라는 영적인 자랑거리를 꼭 붙잡고 있지 않았던가. 나의 사역의 성공이 곧 나의 구원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책은 진짜 믿음은 "나를 지켜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선교사라는 타이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믿음은 나의 열심히 일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둘째, 욥의 고난이 주는 깊은 교훈이다. 나는 어머니의 구원 여부를 '성당에 다녔다'는 눈에 보이는 행위로 판단하려 했다. 또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 하면 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관에 갇혀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더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지 않았을까?

책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부수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성숙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선불리 판단할 자격이 없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자기 부인, 즉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겸손'이었다.

다음으로 엘리야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나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엘리야의 탈진과 회복이다.

나는 '나는 슈퍼 크리스천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사역 성공에 목매달아 엘리야처럼 완전히 지쳐 있었다. 책은 위대한 엘리야조차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네 힘으로 다시 뛰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 따뜻한 물과 떡을 먹이고 폭 쉬게 하셨다. 믿음의 재건은 나의 능력이거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따뜻한 메시지이다. 나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야 한다.

둘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 고침이라는 이벤트 너머의 영원한 구원에 있다. 나는 그동안 나의 코칭과 상담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며, '나의 사역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꾸며왔던 것이다.



책은 가장 큰 믿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과 매일의 만남으로 증명된

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진짜 나이다. 나는 선교사라는 멋진 이름 뒤에 숨어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에 얼마나 시간을 드렸는지 반성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마음에 남는 이야기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완성형의 사람을 쓰시기 보다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는 성장형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 많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책을 읽기 전, 나의 마음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찌지?' 하는 두려운 의심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교만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노력과 직분 위에 세워진 덧없는 모래성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의 '열심'이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명확히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

지가 아니라,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니?"를 물으실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 나의 모든 욕심과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나의 신앙 코칭과 상담은 이제 세상적인 성공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순수한 동행의 전략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믿음의 삶은 날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일 걸어도 절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나는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의 길을 걸겠다. 이 길만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유일한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없다면 자기 의로 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긴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큰 일을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믿음으로 걷는 길이 아님을 인식하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신학·선교학 논문작성의 정석

주제 설정부터 디펜스까지,
단계별 실전 가이드

이성상

하베스트

유목민에게 나타난 교회사 발자취를 찾아서

최하영(Ph.D,
GMS/CCC,
hydavidchoi@
gmail.com)



한국인이 유목민의 질(DNA)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 세계 1위를 들 수 있겠다. 삼면이 바다이고 북위 38 군사분계선으로 육로로 갈 수 없는 현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그 탈출구로 인터넷을 통한 서핑(surfing, network)으로 그 기질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항공과 해상을 통한 경제력으로 2050년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한 곳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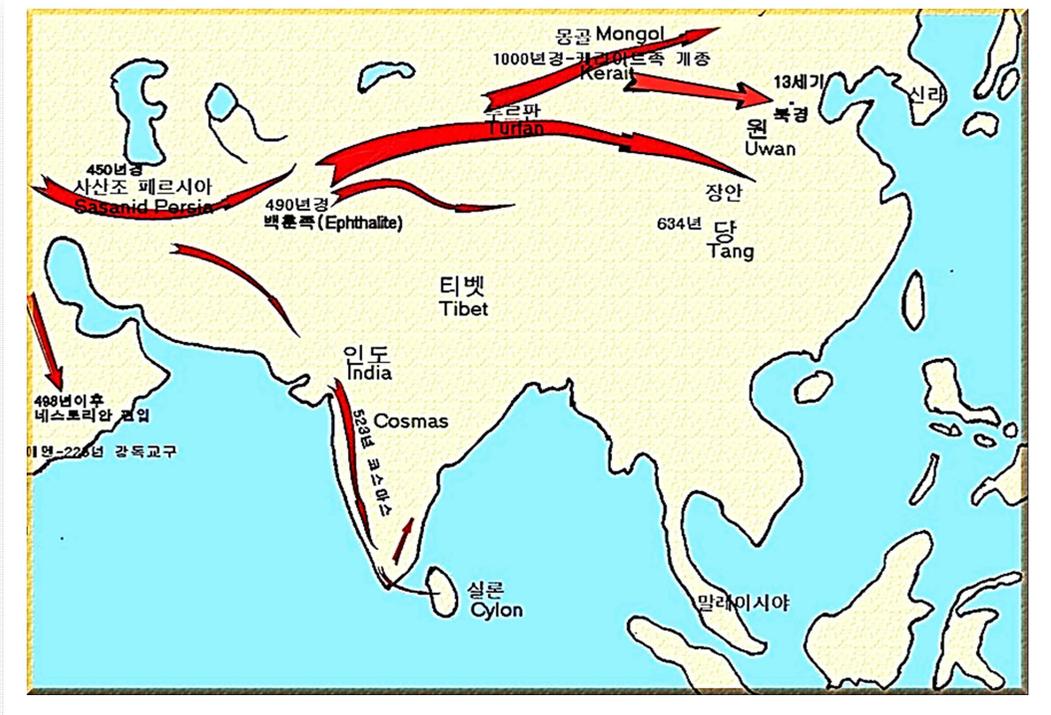
향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적인 기질이 있다. 더구나 한국인 선교사도 그 유목적인 기질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국가와 세계 오지로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 기질에 맞는 한국형 자신학화를 자연스럽게 전수하고 있기도 한다. 즉 한국인은 저돌적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 정주민족처럼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다.

이처럼 유목민에게 나타난 교회사 발자취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남겨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문서로 남겨진 서구중심의 교회사만 배우게 된다. 필자가 2007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1차 추방을 맞이하여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KFHI)에서 섬기면서 동시에 웨신에서 교회사를 한 학기 강의하였다. 그런데, 서구 중심의 교회사와 동방교회사(혹은 정교회사) 과목은 있는데, 정작 아시아 교회사 과목은 없었다. 그래서 동방교회사 과목을 대체하여 아시아 교회사를 강의하였다. 또한 세계선교전파 경

로를 전통적으로 바울이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러면서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와 동시에 사도들도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즉 베드로는 안디옥과 로마로, 안드레는 북방 러시아로, 마가는 이집트로, 마태는 에디오피아와 이란으로, 도마는 인도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 도마의 제자들의 의해 계속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 년의 교회사”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것이 (주)학술정보에 의해 2007년 책으로 나와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20번 정도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의 서구 중심의 교회사관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사고전환)을 갖게 되었다.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콘스



적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북방, 한반도까지 복음의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필자는 2005년에 “실크로드를

탄티노플의 대주교 네스토리우스의 양성론(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약화시켰다는 이론)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에 그의 추종자들

이 추방으로 인해 중동 시리아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은 로마제국과 적대관계이며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인 사산제국이 다스리는 곳으로, 약 150년간 초대교회 순교역사 이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다.

그 순교제물 위에 네스토리우

스파는 네스토리안(Nestorian) 교단(동방교회, The Church of East)를 세웠다. 제3차 네스토리안 공의회에서 가톨릭과의 독립을 선언하고 최고의 수장을 총대주교(Catholicos)라 하였다. 그리고 성직자의 혼인도 승인하면서 서방교회와 점점 멀어졌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

중앙아시아 네스토리안 교회 중심

최하영 지음



한국학술정보주

다. 그 후 네스토리안 교회는 헤프탈(백훈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문어체도 만들어주고 농업도 가르칠 정도로 선교적이고 개혁적인 교단이 되었다.

이미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가 539년에 대주교구가 될 정도로 북방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이에 북방의 케레이트와 나이만, 메르키트, 탕구트 족에 영향을 미쳤다. 6세기 투르크스탄 제국 때에는 투르크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호라산 족장이 개종을 하였다. 당나라 이연

의 어머니도 네스토리안인(혹은 경교인)이었으며, 태종의 문화포용정책으로 635년에 아나본 사절단이 시리아어 경전 530부를 가져와 번역하고 교회들을 곳곳에 세웠었다.

이런 시기에 무함마드(Mohammed)가 가난한 삼촌을 따라 장사를 다니면서 유대교와 단성론 주교를 만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었지만, 단일신 알라를 내세워 이슬람을 만들었다. 그 후 칼리프들은 네스토리안과 멜키트파(콥틱), 단성론 기독교 있는 지역을 정복하였다.

그 중 네스토리안은 이 이슬람 제국 내에서 학교와 학문, 전문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어서기 1000년 경에는 이 지역에 네스토리안 주교가 250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다. 그러나 1095년 가톨릭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13세기 몽골제국의 태동으로 실크로드 따라 동서문명이 활발해졌다. 칭기즈칸을 비



로하여 초기 대칸들은 측근에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을 많이 등용했고, 그 왕후들은 네스토리안 기독교인이었다. 칭기즈칸의 손자이며 일칸(중동 지역)의 설립자인 훌라구부터 40년간 기독교를 부흥시키면서 동서간 여행과 교역이 자유로웠을 정도로 몽골의 평화(PAX MONGOLIA)를 이루었다. 이때 마르코 폴로도 여행할 수 있었고 동방견문록을 썼다. 1281년 몽골인 야발라하 3세가 네스토리안 총대주교가 되었고, 그의 친구 소바가 로마에 사신으로 갔다 미사를 집행했는데, 그곳 주교들은 “언어는 다르나 전례는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몬테코르비노 요한(프란체스코회 수도사)를 북경(칸발릭)에 보내 가톨릭교회를 세우고 네스토리안을 이단시하였다. 그러나 유교를 국교로 하는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핍박과 단절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였다. 더구나 몽골의 세 왕국(일칸, 킵차크, 차카타이)이 이슬람화되었다. 이런 중에 14세기 티무르 제국의 등장으로 이 지역의 교회는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잇스쿨(키르기즈스탄)부터 시작된 흑사병이 실크로드따라 그나마 남아있던

기독교 공동체를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유럽의 르네상스와 신대륙 발견으로 동서의 문화와 경제, 종교의 길인 실크로드가 붕괴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15세기 이후 네스토리안은 갈데아파가 로마 가톨릭에 흡수되었고, 앗시리아파가 쿠르디스탄 모슬을 본거지로 오늘날까지 힘겹게 이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실크로드따라 유목민의 교회 역사 속에 네스토리안은 동서문명의 교류와 만남을 주선하였고, 암흑기 중세 서구를 문명화된 동방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네스토리안은 한 번도 국가 종교가 되지 않았고, 박해와 순교가 낮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5세기

이후 가장 선교적이며 개혁적인 교단으로 아시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들의 기독교 역사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 우리 조상 유목민 속에서의 놀라운 믿음의 선교를 돌아보면서 그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길 소원하여 **20번 정도 연재**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제33회 세계선교 컨퍼런스



2026. 3. 16(월) ~ 19일(목)
태국 치앙마이 하베스트 센터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세계선교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 컨퍼런스

불꽃 신재성

송구합니다. 주여
진실이 사라진 자리마다
오만이 짝초처럼 자라나고
거짓은 권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구호와 선전의 소음이
뫼의를 가려 덮고
사랑을 말하던 입술은
진리를 비웃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며
세상은 냉소를 던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신음하는 땅의 소리 위로
당신의 빛이 다시 비취고
우리는 짙은 어둠을 헤치며
무릎으로 새날을 기다립니다

送舊迎新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TIMES

2025년 12월 1일 제15호

발행인 이성상 박사

편집인 나주아 박사

